

##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펼쳐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 국제사회계가 격찬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봉무정신을 지니시고 인민적정도의 위대한 력사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국제사회계가 높이 칭송하고있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애민정치가 국제사회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위인의 정치방식에 대해 어느 한 나라의 연구소는 김정은령도자께서 현지지도하시는 영상들을 보면 대중적이고 다심적인 모습으로 일관되어있다.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분석하면 인민생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느낄수 있다고 평하였다.

김정은령도자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인민을 위한데로 집중되어있다.

인민을 위하시는 그의 령도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커다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루어지고있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은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은각하는 인민사랑의 서사시를 펼쳐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의 따사로운 품이 있기에 혈연의 정으로 맺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더욱 굳건해졌다.

또한 온 나라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선정들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김정은각하는 령도를 떠나서 조선의 비약적인 발전과 조선인민이 향유하는 사회주의문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방글라데쉬인민련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인민사랑을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조선로동당이 펼치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로 내세우고 계신다고 격찬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하게 구현해나간다고 이끄시는 한편 나라의 방방곡곡에 대한 현지지도로 날과 달을 보내시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열사부무할것을 강조하신다고 브라질신문 《아구

아 베레데》는 전하였다. 이란의 일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야말로 고매한 인덕과 인민관을 지니신 애민형의 정치가이다.

조선인민은 그이께서 펼치시는 정치를 인민사랑의 정치라고 표현한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짐을 물 하나 지어도,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그들이 편리해하는가를 물으신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국가지도자에 앞서 어버이로, 스승으로 따르며 흠모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철학은 숭고한 인민관을 출발점으로 하고있다고 하면서 애질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마싸이》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인민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인민의 존재가치를 이처럼 신성시하고 절대적으로 떠올리신데 그의 정치철학의 특징이 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인민을 위한 열사부무정치철학의 가장 철저한 구현자이다.

그이의 인민사랑, 인민에 대한 열사부무의 정치철학은 조선사회의 민심을 그리잡고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은 인민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김정은동지의 모습에서 부강번영할 조선의 미래를 보았다. 조선에서는 인민의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권위원회 인사들도 김정은각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영상을 보으면서 그이께서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시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김정은각하와 같은 인민적정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사람들이 정말 부럽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라

오는 3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48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폭넓은 북남협상방향을 제시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 61(1972)년 5월 3일 북과 남사이의 교류경제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남측대표를 만나주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밝혀 주시었다.

이날 남측대표를 너그럽게 맞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통일문제 해결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근본원칙을 확고히 세우는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며 걸맞은 조국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할데 대한 세가지 원칙은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점으로, 기초로 됩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

원칙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48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민족자주가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길이라면 외세의존은 민족의 영구분열과 망국의 길이다.

온 겨레는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외부의 어떤 압력과 공갈에도 굴함없이 자주적대결을 끝까지 세우나가는 한 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 사대매국적인 외세의와 공조를 반대하여 결렬히 투쟁하여야 한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대단결은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본질적내용을 이룬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족대단결이 곧 조국통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 하며 련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나라의 통일은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반드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은 우리 겨레가 지니고있는 한결같은 념원이다. 조국통일이 평화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민족적재난을 피할수 없다.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군사적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충돌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인민의 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련합을 이룩하고 반동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3대원칙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지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심점이다.

승경수

##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식사회주의

### 외국의 인사들 강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승리만을 떨치고있는 우리 조국의 강용한 기상은 진보적인류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터 우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을 같은 열백번도 더 주지 않았을 엄혹한 시련을 막아내고 자력갱생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의 기상은 정말 대단하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더욱 우습해지고있지만 자기 힘을 굳게 믿고 굴함없이 사회주의

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전진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조선의 모습은 날을 따라 일신되고있다.

브라질주제사상연구센터 위원장 가브리엘 곤잘레스 마르티네스는 조선은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그 위용을 힘있게 떨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왔다.

오늘도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나가는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불변하다.

온갖 도전과 고난을 이겨내며 끈덕없이 국가건설을 진행하고있는 조선은 세계인민들에게 자주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사회주의의만이 승승장구할수 있다는 진리를 안겨준 인류의 등대이다.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대표단 단장 와질 꾸지민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령도도 크지 않은 조선이 세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특유한 관계 다시말하여 혼연일

체에 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은 령도자를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조선사회의 참모습은 실로 감동적이다.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의 중심은 바로 김정은동지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이를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더욱 절감하고있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조선식사회주의는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전국적으로 수많은 그물우리양어장 조성

공화국에서 그물우리양어가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수산성 양어관리국과 산하단위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연간 조성해야 할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그물우리양어장을 꾸려놓았다.

평양시양어관리국에서는 2만여㎡의 그물우리를 설치하고 물고기생산토대를 원만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함경북도에서도 그물우리양어장을 늘이고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에서는 장연호에 먹이 공급으로부터 온도, 폐하 등을 실시간 감시조종할수 있는 원격조종장치를 갖춘 현대적인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꾸려놓았다.

회령시와 김책시의 종어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창조적수지, 송용적수지에 각각 200여㎡의 그물우리양어장을 새로 조성한데 이어 새끼물고기확보에 힘

을 넣고있다.

자강도에서는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물고기의 생육조건이 유리한 청천강수역에 그물우리양어장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있다.

양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서해감분사업소를 비롯한 남포시의 수십개 단위에서도 자체로 제작한 그물우리들을 대동강과 삼화천 등에 설치하고있다.

본사기자



장연호에 새로 꾸려진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

평양종합병원건설이 더 좋은 래일을 향해 기세드높이 전진하는 공화국의 기상을 시위하며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지금 건설자들은 건설물의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기초공구트리트기와 골조공사를 동시에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아무리설계가 잘되고 질좋은 자재를 쓴다 하여도 시공을 잘하지 못하면 건설물의 질을 보장할수 없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건설자들은 총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 파감한 전격전을 벌리며 건설물의 질보장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이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가슴깊이 새기고 건설공정별로 시공기준과 건설공법을 엄격히 지키며 누가 보진말건 순결한 량심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단위별협동을 긴

## 꺼질줄 모르는 불빛

### — 평양종합병원건설장에서 —

밀히 하고 문전기재들의 가동물을 부단히 높여 생산된 혼합물을 불이 번쩍나게 타입하고있다. 현재의 날새조건을 잘 고려하여 이미 시공된 층막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온도보장대책을 세워 콘크리트양생에 적합한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

한편 휘트 및 철근조립 등을 미리 앞세워놓고 혼합물이 도착하는 즉시 모든 량량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콘크리트입속도를 높이고있다.

건설련합사무의 일군들은 평양종합병원을 현시대와 인민의 요구에 맞고 오늘뿐 아니라 먼 후날에 가서도 인민의 생활에 효과적으로 이바지될수 있도록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무결한 건

축물로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두고있다. 건설련합사무와 각 시공단위에 조직된 질검사위원회들이 건설물의 질보장에

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시공조직과 지휘를 방법론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건설물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매일 총화과 대책



본사기자



◆ 세계를 휩쓸고 있는 《COVID-19》가 좀처럼 억제되지 않고 오히려 국경과 대륙을 횡단하는 전인류적인 대재앙으로 번져지고있다. 악성비루스는 4월 28일 24시 현재 210개 나라와 지역을 휩쓸면서 313만 6 174명의 감염자와 21만 7 79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의 정부요인들과 국

가수반들까지 감염되고 세계지구모에서 4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국제올림픽경기대회까지 연기되게 한 사태는 세계적인 대유행전염

병과 로마법왕은 세계적인 《COVID-19》위기해결에 힘을 집중하기 위해 국제적분쟁들을 일체 중지할것을 호소하였다. 에멘 호시

는 복침을 노린 전쟁연습의 불꽃이 계속 일고있다. 얼마전에도 경상북도 포항 앞바다에서 북, 해, 공군의 지원밑에 해병대 합동

의 평음이 울리고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브 호크》 등 전쟁장비반입도 계속되고있다. ◆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각종 전쟁연습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할뿐아니라 악성비루스를 퇴치하기 위

## 악성전염병과 전쟁연습

병의 위험성과 후과가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잘 말해준다. ◆ 전세계가 악성비루스와 《전쟁》을 선포하고 악성비루스로 인한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얼마전 유엔사무총

반란군과 싸우고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정화를 발표하였으며 팔레스타인과 가세룬, 필리핀에서는 무장그룹 싸움이 싸움을 중지하려는 의향을 내비쳤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상륙훈련이 광기를 띠고 벌어졌다. 남조선강원도 름계군에 있는 훈련장에서 수천명의 병력이 동원된 대규모야전투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한 세계적인 흐름에도 배치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악성비루스와 싸움 대신 동족대결만을 추구하는 남조선군부가 가당케 될 총착점은 파멸의 구렁텅이밖에 없다.